

7
JULY
2018 * VOL.28

이달의 HRD 테마

능력을 담다. 희망을 담다! 「NCS(국가직무능력표준)」

정책 동향

「OECD 2018 한국경제보고서」 발표
제6차 사회관계장관회의, 선취업 후학습 활성화 방안 논의
4차 산업혁명 관련 신산업 분야 인재양성 본격 착수
노동시간 단축 및 최저임금 제도개편 현장안착 방안 마련

현장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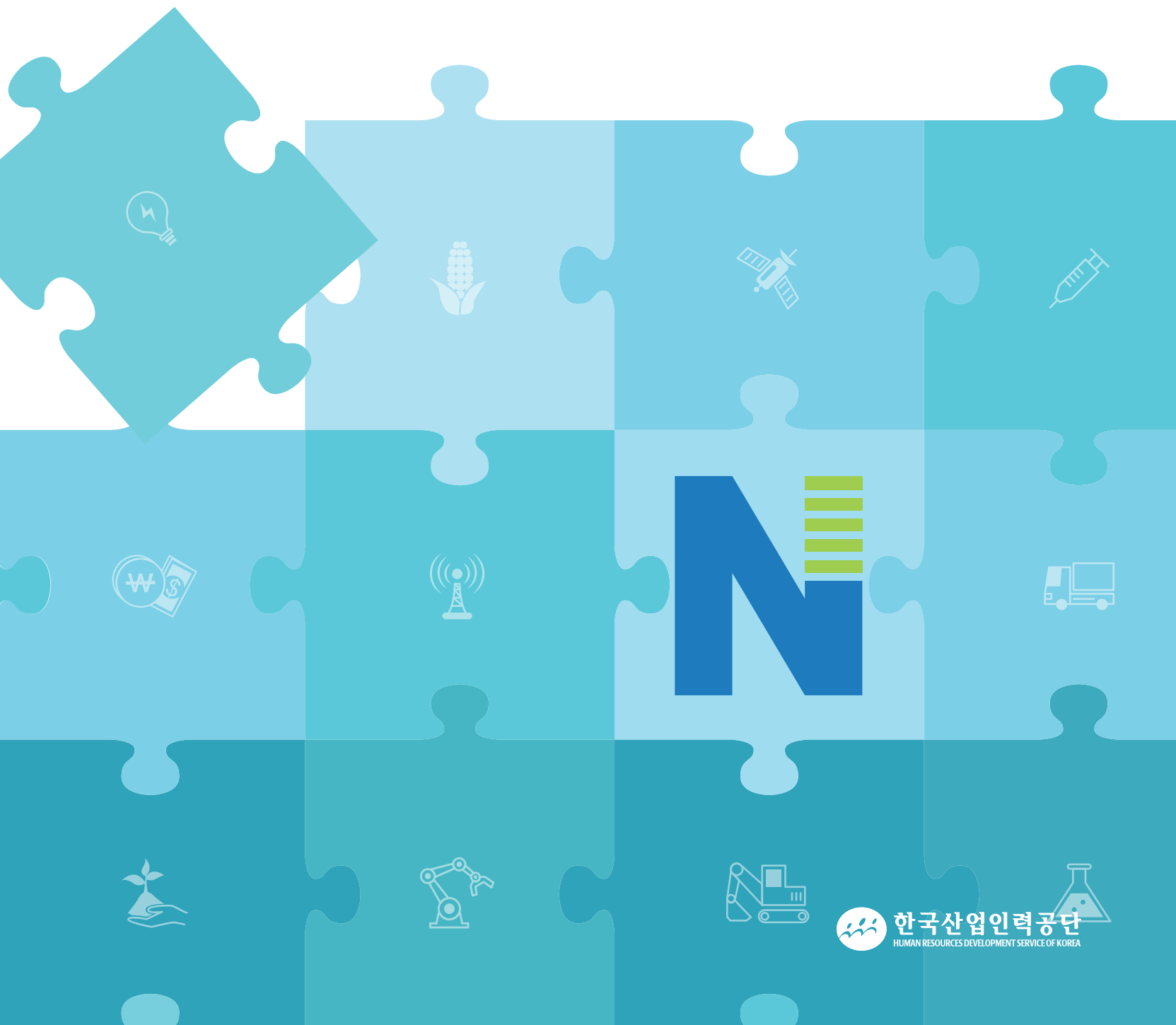
2018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ISC웹진 '사람과 일' 창간호 발간

HRD 통계

'18년 상반기 기준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연구 동향

해외취업지원 미래전략 및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한국산업인력공단
HUMAN RESOURCES DEVELOPMENT SERVICE OF KOREA

2018년 최초로 고용노동부가 주관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최하는

편견없는 채용·블라인드 채용 확산을 위한 무료 교육과정



인사담당자 무료 교육과정

편견없는 채용·블라인드 채용에 대한 이해 및 채용 툴 설계/개발 역량향상을 위해 기업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과정신청하기

면접관 무료 교육과정

편견없는 채용·블라인드 채용에 대한 이해 및 면접유형별 질문활용 역량향상을 위해 기업 면접관을 대상으로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과정신청하기



Cover Story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은 산업현장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허브(hub) 역할을 담당합니다.

통권 제28호

발행일 2018년 7월 1일

발행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주소 (우)44538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45
한국산업인력공단 경영기획실 미래전략팀

전화번호 052-714-8642

구독신청 및 문의 keh4785@hrdkorea.or.kr

인쇄 효민디앤피(051-807-5100)

편집디자인 배소현

이달의 HRD 테마

- 4 능력을 담다. 희망을 담다!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정책 동향

- 8 「OECD 2018 한국경제보고서」 발표
- 9 제6차 사회관계장관회의, 선취업 후학습 활성화 방안 논의
- 10 청년실업난 해소를 위한 청년고용의무제 유효기간 연장 추진
4차 산업혁명 관련 신산업 분야 인재양성 본격 착수
- 11 노동시간 단축 및 최저임금 제도개편 현장안착 방안 마련
고용노동부, 현장에서 듣고 정책으로 답하다

현장 동향

- 12 2018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ISC웹진 '사람과 일' 창간호 발간
- 13 2018년 청년 훈련사다리 시범사업 운영
2018년 직업능력개발훈련 하반기 신규기관 인증평가
- 14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APEC 청년고용증진포럼 개최
기능경기대회 우수 기술기능인력 일자리창출 협약체결
- 15 채용연계형 온라인 직업훈련과정 개발
청년 일본취업지원을 위한 이음프로젝트 추진
- 16 제67차 인재개발(HRD) 정책포럼 : 한국형 청년보장제도 설계
진로교육, 미래를 만드는 희망사다리
- 17 다양한 직업교육, 이제 정책 수혜자가 직접 알린다
이전공공기관, 이전지역인재 양성에 힘 보탠다

HRD 통계

- 18 '18년 상반기 기준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연구 동향

- 20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전문대학 역량기반교육 운영 내실화 방안
평생직업교육훈련의 개혁 방향과 과제
- 21 해외취업지원 미래전략 및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제조 분야 4차 산업혁명의 정성적 파급효과 분석

기관 동향

- 22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고용정보원
- 23 한국폴리텍대학,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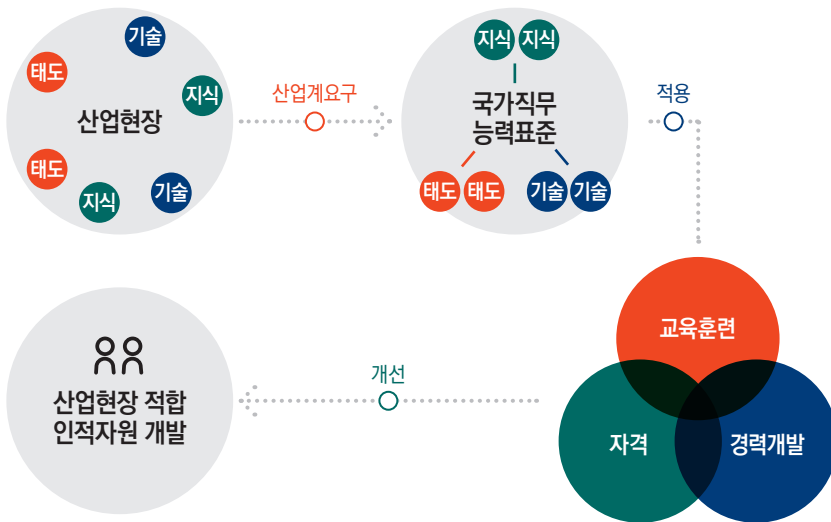
능력을 담다. 희망을 담다!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이란?』

■ 국가직무능력표준(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은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기술·태도 등의 내용을 국가가 체계화한 것

국가	직무능력	표준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국가는 근로자가 산업현장의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차원의 경력개발 지원 체계를 수립해야 함	해당 직무 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지식·기술·태도 등을 의미함 - 일을 할 수 있는 On-Spec인 능력 - 직업인으로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공동능력(직업기초능력) -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직무수행능력	산업부문별 수준별로 체계화하며, 직무능력의 성취여부 판단을 위한 수행 기준을 제시함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념도』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이 왜 필요한가?』

■ 능력있는 인재를 개발해 핵심인프라를 구축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국가직무능력표준이 필요함

- 기업은 직무분석자료, 인적자원관리 도구, 인적자원개발 프로그램, 특화자격 신설, 일자리정보 제공 등을 원함
- 기업교육훈련기관은 산업현장의 요구에 맞는 맞춤형 교육훈련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기를 원함

법령에 따른 NCS

자격기본법 제2조 2호

국가직무능력표준이란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지식·기술·소양 등의 내용을 국가가 산업부문별 수준별로 체계화한 것을 말한다.

자격기본법 제5조 2항

국가직무능력표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① 직무의 범위·내용·수준
- ②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소양 및 평가의 기준과 방법
- ③ 그 밖에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NCS 연혁

1999

- 국무조정실 자격제도 규제개혁 과제의 일환으로 '국가직업능력 표준의 조기 개발·보급' 제시

2002

- 고용노동부·한국산업인력공단 주관 국가직업능력표준(NOS:National Occupational Standards) 개발
- 교육부·한국직업능력개발원 주관 국가직무능력표준(KSS:Korea Skills Standards) 개발

2010

- 표준 명칭 통일(국가직무능력표준, NCS) 및 개발주체 일원화

2013

- 13.2월, '능력중심 사회를 위한 여건 조성'의 핵심국정과제로 확정

2014

- 총 797개 NCS 개발 완료

2015

- 정부부처와 협력하여 NCS활용·확산 추진
- NCS 기반 능력중심채용 도입

2016

- 총 897개 NCS 개발·개선 완료(7. 22 고시 완료)

2017

- 총 50개 NCS 개선 완료(4.27 개정고시 완료)
- 공공부문 NCS 기반 블라인드채용 시행

2018

- 총 948개 NCS 개발·개선(6.1 고시 완료)

과거에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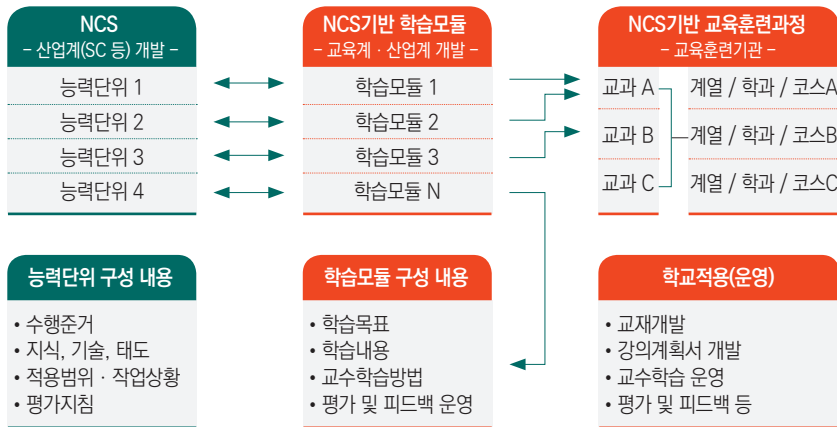
- 직업교육·훈련 및 자격제도가 산업 현장과 불일치
- 인적자원의 비효율적 관리 운용

바뀔니다.

- 교육과 훈련, 국가직무능력표준 중심 시스템으로 전환 (일-교육-훈련-자격 연계)
- 산업현장 직무 중심의 인적자원 개발
- 실력중심사회 구현을 위한 핵심인프라 구축
- 고용과 평생 직업능력개발 연계를 통한 국가경쟁력 향상

「NCS와 NCS 학습모듈」

■ NCS가 현장의 '직무 요구서'라고 한다면, NCS 학습모듈은 NCS의 능력단위를 교육 훈련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된 '교수·학습 자료', 구체적 직무를 학습할 수 있도록 이론 및 실습과 관련된 내용 제시



NCS 학습모듈의 활용

산업현장과 교육현장에서의 연계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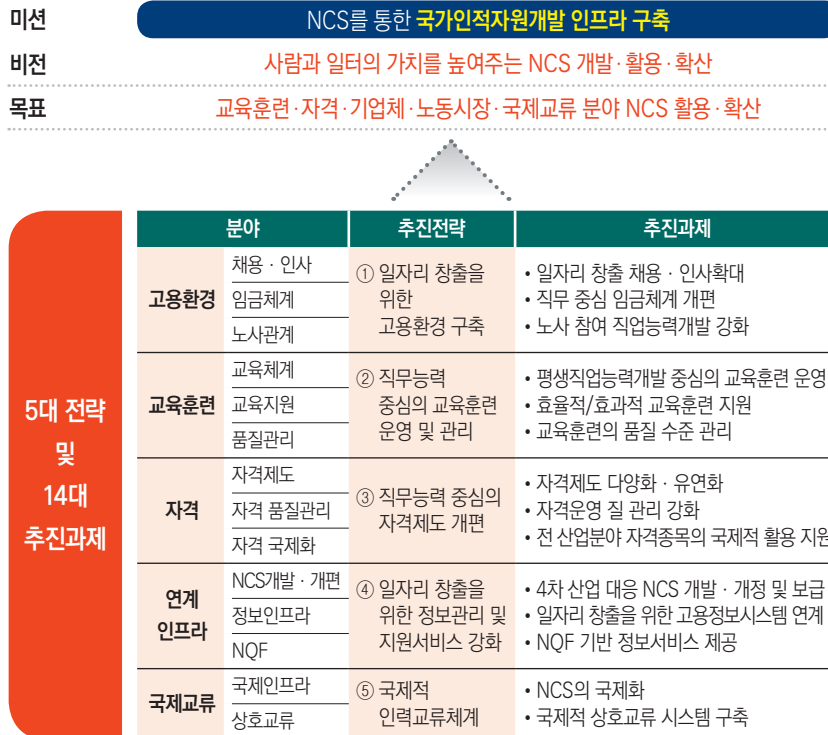
국가직무능력표준 분류

-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등을 참고하여 분류하였으며 '대분류(24) → 중분류(78) → 소분류(241) → 세분류(948개)'의 순으로 구성
- 24개 직업분야, 948개 NCS(능력단위 11,841개) 개발('18. 5월 고시기준)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계	78개	241개	948개
01. 사업관리	1	2	5
02. 경영·회계·사무	4	11	27
03. 금융·보험	2	9	36
04. 교육·자연·사회과학	2	3	8
05. 법률·경찰·소방· 교도·국방	2	4	16
06. 보건·의료	1	2	11
07. 사회복지·종교	3	6	17
08. 문화·예술·디자인·방송	3	9	59
09. 운전·운송	4	7	30
10. 영업판매	3	8	18
11. 경비·청소	2	3	6
12. 이용·숙박·여행· 오락·스포츠	4	12	42
13. 음식서비스	1	3	10
14. 건설	8	26	117
15. 기계	10	31	128
16. 재료	2	7	36
17. 화학	4	12	39
18. 섬유·의복	2	7	24
19. 전기·전자	3	28	93
20. 정보통신	3	13	76
21. 식품가공	2	4	21
22. 인쇄·목재·가구·공예	2	4	25
23. 환경·에너지·안전	6	18	54
24. 농림어업	4	12	50

「국가직무능력표준(NCS) 활용확산 중장기 추진모델」

■ 기업의 HR, 교육훈련, 자격 등 다양한 분야에서 NCS를 도입하여 활용



『국가직무능력표준(NCS) 활용현황』

■ NCS 활용패키지 : 교육·훈련, 기업 및 자격분야에서 쉽게 NCS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도구 묶음으로서 일종의 ‘NCS 사용 설명서’

평생경력 개발경로	• (개념) 한 개인이 직업생활에 종사하는 동안 계획하는 직위나 역할이동 경로를 도식화하여 제시한 모형 • (구성) 경력개발경로 모형, 직무기술서, 채용·배치·승진 체크리스트, 자가진단도구 등
훈련기준	• (개념) 체계적인 직업능력개발을 위해 훈련 직종별로 훈련 목표, 교과내용, 시설·장비 등에 관한 기준 제시 • (구성) 훈련직종별 직종 정의, 훈련이수체계, 훈련시설, 훈련교사, 교과내용, 평가사항, 참고사항 등
출제기준	• (개념)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운영되는 자격시험의 문제를 출제하기 위해 마련한 기준 • (구성) NCS 능력단위별로 평가영역, 평가방법, 평가시설·장비, 평가소요시간 등

■ 기업의 NCS 활용 유형 (NCS 기업활용 컨설팅 유형)

채용 (블라인드 채용)	NCS를 채용 단계에서 활용하여 NCS매핑 및 직무분석을 통해 공정한 채용 프로세스 구축 및 직무중심의 블라인드 채용 실현
재직자 훈련 (근로자 능력개발 지원)	NCS 활용패키지의 ‘경력개발경로’ 기반 사내 경력개발경로와 수준별 교육·훈련이수체계도 개발을 통한 현장 직무 중심의 훈련
배치·승진	현장 직무 중심의 훈련체계와 ‘배치·승진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근로자 배치·승진으로 직급별 인재에 관한 회사의 기대와 근로자 역량 간 불일치 해소
임금	NCS 기반 직무 분석을 바탕으로 기존 ‘관리직·연구직’ 중심의 임금 체계를 ‘직무급(직능급)’ 구조로 전환

NCS의 활용

기업체, 직업교육훈련기관, 자격시험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음

기업체	교육훈련기관	자격시험기관
현장 수요 기반의 인력채용 및 인사관리 기준	직업교육 훈련 과정 개발	자격종목의 신설· 통합·폐지
근로자 경력개발	교수계획 및 매체, 교재 개발	출제기준 개발 및 개정
직무기술서	훈련기준	시험문항 및 평가방법

교육훈련

NCS를 기반으로 교육·훈련과정을 편성하고 학과 구성 ('16년 부터 직업교육·훈련과정 편성에 NCS 전면 적용)

국가기술자격

NCS 기반 교육·훈련 이수 후 평가를 통해 자격을 취득하는 과정 평가형 자격

과정평가형자격제도



블라인드 채용

공공(지방공기업)	민간
'18년 320곳 전체(151곳)	민간 합동 능력중심채용 실천 선언, 컨설팅을 통한 변화 유도

『고용부장관, 국가직무능력표준 확정·고시(6.1)』

■ 고용노동부는 '17년 신규 개발한 50개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6.1(금)자로 확정·고시하였다.

'17년도에는 전기전선제조 등 현장수요가 많은 분야, 빅데이터 기획 등 미래유망 분야(27개)를 포함한 50개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개발하였다. 신규 개발된 50개 NCS는 NCS홈페이지에 공개 후 국민수렴 및 자격정책심의를 거쳐 확정·고시 되어 총 948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고시가 완료되었다. 고용노동부 김명주 장관은 “이번에 추가로 개발·고시된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은 착용형 스마트기기 등 미래 유망산업 기술 변화와 기업현장 수요를 반영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일’을 중심으로 ‘교육·훈련’과 ‘자격’이 연계되어 실력중심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개발 과정에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참여시켜 산업현장에 정착시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신규 개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50개

여신전문금융영업, 화재감식평가, **스마트재난위험예측, 스마트재난관리설계**, 아이돌봄, **3D프린팅디자인**, 패키지디자인, **VR콘텐츠디자인**, 건설공사판별시공, **해양플랜트종합설계, 해양플랜트구조설계, 해양플랜트기계설계**, 보일러운영관리, 심층(철목), 조선허용(죽장,발판,scaffolding), 분말야금, **화학신소재개발**, 화학제품기술 사업화관리, 고무배합, 고무제품제조, **직류송배전시험평가**, 전기전선제조, **초임계CO₂화전기기 설계제작**, 광학시스템제조, **가상훈련콘텐츠개발**, **실감형콘텐츠하드웨어(디바이스)개발**, **착용형스마트기기설계, 착용형스마트기기서비스, 착용형스마트기기개발**, **빅데이터기획, 핀테크기술기획, 빅데이터 플랫폼구축, 핀테크엔지니어링, 빅데이터운영·관리, 정보보호암호·인증**, 지능형영상정보처리(CCTV), 구내통신설비공사, **실감형플랫폼구축, IoT통신망구축, 실감형통신서비스, 실감콘텐츠촬영**, 한과제조, 공간화해장식, 광물시추, **원자력발전소해체 방사성폐기물관리**, 시설원예, 특용작물재배, 유기재배, 말 이용, 곤충사육

※ 밑줄은 미래유망 직무를 의미함

HRD
칼럼직무(능력) 중심
채용문화 정착을 위한 과제

한국산업인력공단 NCS총괄팀장

김진실

(lisnij15@hrdkorea.or.kr)



정부는 2015년 1월 NCS 기반 능력중심 채용 방안, 2017년 7월 블라인드 채용 도입방안을 발표하고 이를 330개 공공기관과 151개 지방공기업에 적용을 시작으로 민간기업과 중견, 중소기업에 점진적으로 적용하여, **우리 사회의 채용 문화를 '직무(능력) 중심'으로 정착 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이에 한국산업인력공단 NCS센터는 'NCS 기반 능력중심 채용가이드북과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북' 발간, 공공기관 인사담당자, 면접관 대상 교육 실시, 취업준비생 대상 설명회(상시 및 임시), 컨설팅 지원, 직업기초능력 관련 예시 문항 공개 등 직무(능력) 중심 채용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는 스펙 위주의 채용문화를 직무중심의 채용으로 전환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제2의 스펙”이라는 오명을 안게 만든 직업기초능력 필기평가에 대해서는 재정비가 필요한 실정이다.

당초 직무능력채용 설계 당시 대규모 공채(전반적으로 성실하고 '뚝뚝한' 인재를 선발하여 이들에게 다양한 일을 맡기는 숙인주의 방식)에 익숙한 공공기관에서는 특정 직무분야에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는 직무능력채용제도 도입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직무능력의 개념을 직업기초능력(공통된 역량)과 직무수행능력(특정분야 능력)으로 정의한 후, 기존의 적성검사를 직업기초능력 평가로 대체할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하였다. 직업기초능력평가는 직무를 기반으로 한 상황을 제시하고 실제 직무에서 요구되는 능력을 평가한다는 측면에서 기존의 인적성검사와는 근본적인 차이를 갖고 있는 것이다. 즉, 직업기초능력 필기전형과 인적성검사의 특성이나 초점이 다르다는 것은 검사 개발을 다르게 시도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기존 인적성검사는 매우 탈맥락적이고 분절적인 능력을 평가하는 문항을 주로 사용하였고, 이러한 문항들은 직무에 대한 이해가 없어도 복제 또는 양산이 가능했던 반면, 직무를 기반으로 하는 직업기초능력평가는 역량타겟팅, 상황설정, 행동대안 등에 대한 다양한 고려가 필요하므로 직무와 평가에 대한 전문성이 없이는 양질의 문항 개발이 어려운 실정이다.

직업기초능력평가 도입으로 인한 취업준비생들의 심리적, 경제적 부담에 따른 불만 증가와 맞물려 민간 컨설팅 회사 주도의 직업기초능력 필기전형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할 경우, 직무(능력) 중심의 채용이 제대로 정착되기에는 상당히 시간이 걸릴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지금은 직업기초능력 평가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점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 직업기초능력 영역 및 하위 영역에 제시된 능력에 대한 이해, 함양 방안, 예시 문항과 해설 등의 형태로 된 안내자료를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다만, 취업준비생의 예시 혹은 기출 문항에 대한 요구는 거의 무한 수준이며 기관별 직무를 반영한 직업기초능력평가를 개발하고 안내하는 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 보다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공공기관이 개발한 직업기초능력 필기전형 도구에 대한 품질 관리를 해야 한다. **그간 공공기관 채용에서 사용한 직업기초능력 필기도구의 품질 점검(검사설계, 문항, 채점, 결과, 신뢰도, 타당도 자료 점검)을 통해** 직업기초능력 평가의 취지를 호도하거나 취업준비생들에게 혼란을 주는 평가 관행을 방지해야 한다. 이 밖에, 정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입직자를 포함한 재직자 직업기초능력평가에 대한 제도를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직업기초능력에 대한 개발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NCS가 호주의 훈련패키지(training package)를 벤치마킹 하였다면, 직업기초능력 역시 호주의 변화상황을 살펴봐야 한다. 2000년대 당시 호주의 직업기초능력은 공통능력(key skill)으로 정의 되었다면, 최근에는 고용가능성(employability skills)으로 변화하여, 직무상황을 함께 고려하여 재정의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의 직업기초능력 영역과 교재개발이 2003~2007년도에 되었다면, 이 역시 업데이트가 필요한 시점인 것이다.

또한, 직업기초능력에 대한 교육방향 역시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직업기초능력은 교양교과에서, 직무수행능력은 전공교과에서 구분하여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통합하여 가르칠 필요가 있다. 교양교과에서는 다양한 직업맥락을, 전공교과에서는 직업기초능력을 동시에 키울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NCS는 현재의 관점에서 판단하기보다는 미래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 연공서열중심, 포괄직무수행 관행 등이 보편화되어 있는 노동 시장에서 NCS를 기반으로 하는 직무(능력) 중심의 채용 등 다양한 제도가 현장에 정착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4차산업혁명 등 미래사회에서 연공서열중심의 문화에서 직무중심 문화로의 변화는 필연적이라는 것을 누구나 인지하여야 할 것이다.**

「OECD 2018 한국경제보고서」 발표

중소기업 역동성 강화를 위한 직업교육 공급 확대 및 품질 개선 강조

2018년 6월 20일, OECD



■ OECD는 6. 20(수) 16:00에 「한국경제보고서(OECD Economic Surveys : Korea 2018)」를 발표

■ OECD는 금번 보고서에서 한국을 짧은 시간 동안 세계 주요 경제국으로 발돋움 시킨 정부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

* 건전한 재정·통화정책, 높은 수준의 인적·물적자본 투자, 대외지향적 정책 등

- 다만, 최근 낮은 노동생산성 지속, 대·중소기업, 제조업·서비스업 간 양극화 등으로 전통적 성장모델의 문제점 노출 지적

■ OECD는 ①거시경제 정책, ②대기업집단 개혁, ③중소기업 역동성 강화를 위한 권고 사항 제시

① 거시경제 정책

- 고령화 등 미래 도전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지출 확대가 요구되며 재정의 지속 가능성 담보 노력 필요
- 재정지출 증가에 대비 부가가치세 등 상대적으로 경제성장에 영향이 적은 조세 활용 검토

② 대기업 집단 개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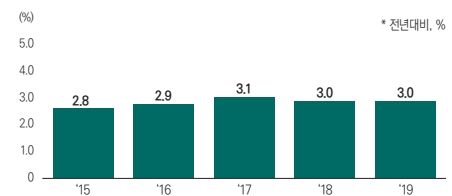
- 수입·외국인투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상품시장 규제를 자유화하여 경쟁 촉진
-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모든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비중을 과반수로 확대

③ 중소기업 역동성 강화

- 중소기업 인력부족 해소를 위해 직업교육 공급 확대 및 품질 개선
- 중소기업 지원제도 효율화를 위해 제도 성과를 모니터링하고, 지원 졸업제도 도입

* OECD는 2년 주기로 회원국의 경제동향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평가하고, 정책권고 사항을 포함한 국가별 검토보고서를 발표

한국경제 성장전망(GDP)



REVIEW

OECD 2016 한국경제보고서(2016. 5. 16)

■ OECD는 ①생산성 증대, ②재정정책, ③고용확대, ④사회통합 촉진을 위한 권고사항 제시

① 생산성 증대

- 규제부담 완화를 위한 새로운 '규제비용총량제' 사용
- 창업초기 상장 촉진과 규제개혁으로 M&A 시장에 활기를 불어 넣어 벤처 캐피털 스타트업에 집중

② 재정정책

- 장기 재정건정성 확보를 위한 정책 프레임워크를 마련하되 2016-2017년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재정정책 사용

③ 고용 확대

- 출산 및 육아 휴직 사용 촉진
- 마이스터고 및 일학습병행제를 확대하고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토대로 교육과정을 설계하여 교육과 취업 간 연계 강화

④ 사회통합 촉진

- 정규직 근로자의 고용 보호를 완화하며 비정규직에 대한 사회보험 적용과 교육훈련을 확대하여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해소

제6차 사회관계장관회의, 선취업 후학습 활성화 방안 논의

관련부처 협력을 통한 청년 노동시장 구조적 문제 해결 추진

2018년 6월 22일, 관계부처 합동

-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 6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련부처 장·차관 참석으로 2018년도 제6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 이 자리에서는 지난 4월 정부에서 마련한 「고졸취업-후진학 활성화 방안 수립계획」에 관한 구체적인 세부방안으로 다음 달 발표 예정인 「선취업-후학습 활성화 방안(안)」에 관하여 심도 깊은 논의를 실시함
-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은 “심각한 청년실업을 문제 해소를 위해 후학습 인증사업 등 신설과 동시에 취업을 원하는 일반계고 학생들을 위한 직업능력개발을 더욱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으며,
- 박춘섭 조달청장은 “현재 일학습병행 참여기업과 마찬가지로 고졸취업 우수기업, 후학습 우수기업에도 공공조달 입찰 시 가점부여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겠다.”고 밝힘



2018년 5월, 취업자 7.2만명 증가 및 고용률 67.0%

2018년 6월 15일,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

■ 취업자 동향

- 생산가능인구 감소 가속화와 함께 제조업 구조조정, 중국 관광객 회복지연 등으로 취업자 증가세 둔화

구 분	'18.1월	'18.2월	'18.3월	'18.4월	'18.5월
전 체	33.4	10.4	11.2	12.3	7.2
제조업	10.6	1.4	1.5	△6.8	△7.9
건설업	9.9	6.4	4.4	3.4	0.4
서비스업	4.2	△1.3	2.5	10.0	9.0

■ 고용률 및 실업률 동향

- 15~64세 고용률은 67.0%로 전년동월과 동일하며, 15~29세 청년 고용률은 42.7%로 감소 확대(△9.5만명)
※ 공무원 시험(+14.6만명) 일정 이동 등에 따른 경찰인구 증가 및 취업자 감소
- 실업률은 4.0%로 전년동월 대비 0.4%p 상승하였으며, 실업자 12.6만명 증가(총 112.1만명)

■ 경제활동참가율

- 전년동월 대비 경제활동인구 19.8만명 증가로 경제활동참가율 0.2%p 상승('18.5월 63.9%)
- 비경제활동인구는 1,595.6만명으로 전년동월 대비 4.1만명 증가

- 정부는 청년 일자리 대책 주요과제 및 추경집행에 만전을 기하고 산업 경쟁력 강화, 규제개선 등 혁신성장을 속도감 있게 추진 예정

청년실업난 해소를 위한 전방위적 노력, 청년고용의무제 유효기간 연장 추진

법률 및 청년고용의무제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

2018년 6월 14일,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는 6월 14일부터 7월 25일까지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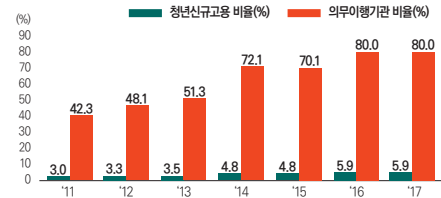
- 이는 심각한 청년실업난과 향후 3~4년간 20대 후반 인구의 일시적 증가 등에 따른 대응이며, 청년고용 증대를 위한 지원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주요 개정내용〉

- '18년말 종료되는 청년고용의무제 유효기간 연장
(법률 유효기간을 '18→'23년으로, 청년고용의무제 유효기간을 '18→'21년으로 연장)
- 청년선호 우수기업 지정 및 정부지원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
- 중견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근거 마련

■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고용 비율을 기존 3%에서 5%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 예정

청년고용의무제 운영현황



4차 산업혁명 관련 신산업 분야 인재양성 본격 착수

기업 현장에서 필요한 신산업 분야 청년인재 800명 양성 추진

2018년 6월 1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미취업 이공계 인력을 대상으로 출연(연)에서 직무훈련을 실시하고 수료 후 패밀리기업 등으로 취업까지 연계하는 「4차 인재양성 과정」을 추진한다고 밝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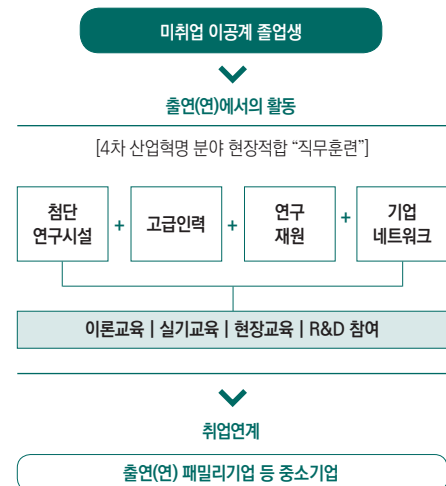
- 2018년 일자리 추경으로 편성된 신규사업('18년 74.4억원)으로 '18년 800명을 포함하여 3년간 3,000명의 직무훈련 지원 예정

■ 출연(연)은 보유한 첨단 연구시설과 고급인력 등을 활용하여 산업현장에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중점 연구분야·기업수요 등을 반영하여 특화된 직무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 이론교육, 실무교육, 직무체험 등 직무훈련생의 현장실무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운영

■ 과기정통부에서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를 주관기관으로 하여 6월말부터 사업설명회를 진행하고, 7월말까지 직무훈련생을 모집·선발하여 '18년 8월부터 '19년 1월까지 6개월 간 훈련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다.”고 밝힘

4차 인재양성과정 운영개요



* 패밀리기업 : 출연(연) 기술이전 등 출연(연)과 협력하는 중소·중견기업('17년 총 5,786개)

노동시간 단축 및 최저임금 제도개편 현장안착 방안 마련

다각적 전문가 참여를 통한 제도개선에 따른 원활한 현장안착 방안

2018년 6월 15일, 고용노동부

-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6월 15일 노동법, 노동경제, 노사관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
 - 정책자문위원회는 2017년 11월 100여명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총괄 자문위원회와 근로기준, 노정, 산재예방보상, 고용, 저출산고령화, 4차 산업혁명 등 6개 정책분과로 운영 중이며, 이 날은 총괄위원 및 근로기준 분과 위원 19명이 참석
- 자문위원들은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의 현장안착을 위해 노·사 전문가 및 관계부처가 TF를 만들어 대응하면서 업종별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것을 권고했으며,
 - 노동시간 단축이 생산성 증대, 작업조직 개편, 일터혁신으로 이어지도록 체계적·전문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함
- 한편, 최저임금 제도개선의 경우 임금체계 개편과 연결되어야 그 효과가 극대화 될 것이라고 하면서, 정기상여금의 기본급 산입 등을 촉진하는 등 임금체계 단순화를 적극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
- 김영주 장관은 “최저임금 및 노동시간 단축은 경제 민주화 정책 등과 긴밀하게 연결된 만큼 관계부처와의 협의도 강화해 나가겠으며, 긴급 전문가 자문을 통해 세부적 사항들을 검토·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힘



고용노동부, 현장에서 듣고 정책으로 답하다

고용노동행정 관련 국민들의 목소리 청취를 위해 현장노동청 설치·운영

2018년 6월 18일, 고용노동부

-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6월 18일 청계천 광장에서 현장노동청 개청식을 개최하여
 - 사업장, 노동자, 청년 등 주요 정책대상이 밀집되어 있는 장소에 현장창구를 설치하여 대국민 제안을 접수받는다
- 금번 현장노동청은 지난해에 이은 제2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국 9개 주요 도시에 10개소를 설치·운영할 예정이며, 고용노동부 e-현장행정실(eboard.moel.go.kr)을 통한 온라인 제안도 함께 받을 예정
- 김영주 장관은 “이번 현장노동청은 노동시간 단축, 최저임금 제도개편 등 고용노동 현안에 대해 직접 설명드리고, 현장의 우려와 애로를 충분히 듣고 정책을 보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강조함



현장노동청 설치 장소

서울 (2개소)	청계천, 신촌	대전	갤러리아 백화점 광장
중소	부평역	경기	수원역 환승센터
부산	NC백화점 광장 (전포동)	울산	롯데백화점 앞
대구	동성로	강원	남춘천역 광장
광주	조선이공단대		

2018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2018년 6월 20일,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6월 20일(수)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18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이하 ‘일자리대상’)』 시상식을 개최하였다.

이 날 행사에는 이낙연 국무총리,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 외에 자치단체장 및 지역일자리사업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하였다. 올해로 7년째인 ‘일자리대상’은 명실 공히 지방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역일자리와 관련한 자치단체의 일자리 정책을 종합적으로 평가·시상하는 국내 유일의 전국단위 행사로, 그간 일자리대상은 자치단체의 우수한 지역일자리 정책과 사업들을 발굴·공유하고, 이를 널리 전파하는 계기로 자리매김해왔다.

올해 시상식에서는 총 65개 자치단체가 공시제(58개) 또는 지역일자리사업(15개) 우수 사례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대통령상인 영예의 종합대상은 광주광역시, 국무총리 상인 부문별 대상은 대구광역시(광역시)와 천안시(기초)가 수상하였다. 특히, 광주광역시, 강원도 등 8개 자치단체는 공시제와 지역일자리사업 등 2개 부문에서 모두 상을 받는 영광을 차지하였다.

2018 일자리 대상 시상 현황

구분	공시제 (58개 자치단체)	지역일자리사업 (15개 자치단체)
종합대상 (대통령상)	광주광역시	-
부문별 대상 (국무총리상)	대구광역시(광역시), 천안시(기초)	-
최우수상	경상북도 등 11개 자치단체	충청남도 등 5개 자치단체
우수상	부산광역시 등 33개 자치단체	인천광역시 등 10개 자치단체
특별상	세종특별자치시 등 11개 자치단체	-

ISC웹진 ‘사람과 일’ 창간호 발간

2018년 6월 1일,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김동만)은 1일, 정보기술 등 17개 산업분야별* 정보와 현장사례 등을 담은 산업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이하 ISC) 웹진 ‘사람과 일’ 창간호를 발간하고 배포했다.

17개 ISC 산업분야 : ①정보기술·사업관리 ②경영·회계·사무 ③금융·보험 ④상담 ⑤디자인·문화콘텐츠 ⑥관광·레저 ⑦음식서비스 ⑧건설 ⑨조선·해양 ⑩기계전자 ⑪부리 ⑫재료 ⑬화학 ⑭섬유제조·패션 ⑮전기·에너지·자원 ⑯전자 ⑰방송·통신기술

웹진은 ▲분야별 ISC 소개와 해당 산업분야의 정책이슈가 담긴 ‘이달의 이슈’ ▲시의성 이슈의 심화 정보를 다룬 ‘집중분석’ ▲17개 산업분야별 일자리 현황을 보여주는 ‘산업기상도’ ▲박람회 등 현장소식을 전해주는 ‘현장포커스’ 등의 콘텐츠로 구성돼 있다.

웹진은 17개 ISC와 451개 협회 및 단체, 기업, 관계기관 등에 매월 말일 메일링 서비스되며 관심있는 고객 누구나 한국산업인력공단(www.hrdkorea.or.kr)과 ISC(www.isckorea.or.kr)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다.



2018년 청년 훈련사다리 시범사업 운영

2018년 6월, 고용노동부·한국산업인력공단

고용노동부·한국산업인력공단은 청년들이 원하는 민간우수훈련에 참여 가능하도록 훈련사다리 제도를 신설하여 추진한다. 「청년 훈련사다리」 사업은 청년이 훈련과정을 통해 취업역량을 높이고 좋은 일자리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다. 국비지원이 없었던 민간 우수훈련과정 중 청년이 선호하고 취업률 등 성과가 높은 과정을 선정하여 지원하며 '18년 하반기에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19년 확대·보완 등을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 지원대상** - 취업성공패키지 I 유형에 해당되는 청년(만 18~34세)
지원과정 - 패스트캠퍼스(주) UX/UI디자인스쿨 등 4개 기관, 11개 과정
지원내용 - (정부지원금) 청년 1인당 최대 1,000만원 한도로 수강료의 90% 지원
 - (자체부담) 수강료의 10% 부담

추진 절차



2018년 직업능력개발훈련 하반기 신규기관 인증평가

2018년 7월 16일~27일,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직업능력심사평가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직업능력심사평가원(원장 이문수)은 2018년 직업능력개발 집체 및 원격훈련 하반기 신규기관 인증평가 실시 계획을 발표했다.

구분	인증평가 영역	인증평가 항목	
1단계	기관 건정성 평가	1. 준법성	2. 재정건전성
2단계	집체훈련	1. 기관경영	2. 훈련과정 관리
	원격훈련	3. 시설 및 장비	4. 훈련전담인력
	역량평가 (현장평가, 100점)	5. 훈련생 관리	
		1. 기관경영	2. 훈련과정 관리
		3. 훈련인프라	4. 훈련전담인력
		5. 훈련생 관리	

신청대상

- 인증평가 대상 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기관 중 훈련종료일이 2017.6.1.~ 2018.5.31.인 집체훈련 및 원격훈련 실적이 없는 기관
 - 단, 2018년 실적보유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 불가
- 2018년 상반기 신규기관 인증평가에서 '인증유예' 기관 중 하반기 신규기관 인증평가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

신청기간은 7월 16일부터 7월 27일까지이며, HRD-Net 심사평가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직업능력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ksq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APEC 청년고용증진포럼 개최

2018년 6월 26일~27일,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김동만)은 26일부터 양일간 코트야드 메리어트 호텔(서울 영등포구)에서 APEC(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회원국 간 청년고용정책과 직업훈련기술 향상 방안 등을 공유하는 'APEC 청년고용증진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에는 APEC 회원국 고용·교육 분야 정책담당자와 국내·외 청년고용 및 인적자원개발 전문가 40여명이 참석해, APEC 회원국의 ▲국가별 청년고용정책 ▲직업훈련기술 향상 제도 및 우수사례 ▲상호기술인정을 통한 노동이동성 증진 방안 ▲고용증진을 위한 초국가적 협력방안 등을 주제로 사례 공유와 토론을 진행한다. 한국산업인력공단 김동만 이사장은 “포럼을 통해 범국가적 화두인 청년고용에 대해 다양한 논의와 함께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길 기대한다”며 “이번 포럼에서 우리 제도의 우수성을 알리는 한편, 해외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통해 지속적인 제도 발전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기능경기대회 우수 기술기능인력 일자리창출 협약체결

2018년 6월 15일,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김동만)과 CJ푸드빌(대표이사 구창근)은 15일, CJ푸드빌 본사(서울 중구)에서 기능경기대회 선수들의 취업지원과 우수기능인력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공단은 기능경기대회를 통해 우수한 기능인력을 배출하고 CJ푸드빌은 우수 기능인력의 취업을 지원하게 된다. 양 기관은 상호 협력해 산업현장에 필요한 전문 기능인력 육성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기업과 국가 산업경쟁력 강화와 실력이 인정받는 사회풍토 조성에도 기여한다.

CJ푸드빌은 뚜레쥬르, VIP'S, The Place 등의 브랜드를 보유한 종합 외식서비스 기업으로 국내 1,500여개 매장과 미국, 중국, 베트남 등 7개국 430여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어 요리, 제과·제빵 직종에서 선수들의 국내·외 취업 연계가 가능하다.

공단 김동만 이사장은 “협약을 통해 우수 기술·기능인력이 산업 현장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채용연계형 온라인 직업훈련과정 개발

2018년 6월 14일,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코리아텍 온라인평생교육원(원장 권오영)은 14일(목) 오후 코리아텍 중회의실에서 (주)메이머스트(대표 박상현)와 '채용연계형 온라인 직업교육훈련 개발 및 운영'에 대한 상호협력을 골자로 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채용연계형 온라인 과정'은 교육기관이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직무에 대한 맞춤형 온라인 훈련과정을 설계·개발 및 운영하고, 일반 구직자가 교육과정을 수료하면 협약기업의 서류전형이 면제되고 면접만을 통해 채용되는 교육훈련 과정이다

국내 공공교육기관에서 민간기업과 협약을 맺고 '채용연계형 온라인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으로 온라인평생교육원은 (주)메이머스트 기업문화를 포함, IT분야 가상화서비스 직무 전문교육과정을 약 한 달간 개발할 예정이다. 가상화 솔루션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CITRIX(시트릭스, 1989년 설립된 미국의 다국적 소프트웨어 기업)의 실습 프로그램까지 온라인 교육과정에서 지원한다.

한편, 온라인평생교육원은 7월 말 '채용연계형 온라인 직업교육훈련 콘텐츠'가 완성되면 홈페이지(<https://portal.e-koreatech.ac.kr>)를 통해 채용연계형 과정 학습자 모집을 안내할 예정이다.



(주)메이머스트

7월에 설립돼 공공기관, 기업을 대상으로 서버·스토리지·네트워크 등 IT솔루션 공급하며 가상화, 모바일, 클라우드 보안 등 차세대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이다.

청년 일본취업지원을 위한 이음프로젝트 추진

2018년 6월 18일, 고용노동부·외교부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는 외교부와 함께 일자리 기회가 많고 한국 청년들에 대한 수요가 높은 일본으로의 취업을 적극 지원한다.

일본은 기업들의 구인난이 심각하여 한국 청년의 진출이 유리한 상황이고 한국 청년들의 경우에도 해외진출정보망인 월드잡플러스에 일본을 희망 취업국가로 가장 많이 등록하고 있으며 그 수가 매년 증가하는 등 일본 취업에 대한 수요가 높다.

한일 이음 프로젝트는 고용노동부와 주일대사관이 공동으로 주관하고 K-Move센터,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함께 참여하는 팀을 구성하여 구인처 발굴, 구직자 양성, 매칭 지원, 사후 관리 등 취업 전·후 모든 과정을 보다 짜임새 있게 지원하여 우리 청년의 일본 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국내외 해외취업 지원 인프라

(K-Move센터, 재외공관, 산업인력공단)

구인기업발굴	구직자 발굴
로컬기업 진출기업 한인기업	정보제공 교육훈련 3+1
매칭지원	사후 관리
온라인 오프라인	정착지원금 경력관리 시스템

5년간 1만명 취업목표



제67차 인재개발(HRD) 정책포럼 : 한국형 청년보장제도 설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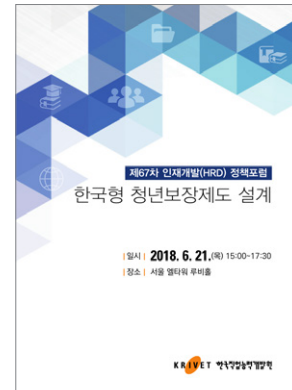
2018년 6월 21일,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원장 나영선)은 6월 21일 서울 엘타워 루비홀에서 '한국형 청년보장제도 설계'를 주제로 제67차 인재개발(HRD)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2017년 기본연구를 통해 '한국형 청년보장제도'를 설계하였으며, 이 연구결과를 심화시켜 총체적이고 유기적으로 연계된 종합청년대책, 즉 청년들이 교육, 훈련, 고용 등 어느 하나의 상태에 있도록 보장하는 종합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 주요 발표주제 *

- 한국 청년층 니트족의 특징과 정책적 시사점 (오호영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
- 서비스 전달 역량의 확충 (최영섭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
- 청년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의 현황과 과제 (정재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
- 청년에 대한 소득 지원 (채창균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



진로교육, 미래를 만드는 희망사다리

2018년 6월 7일, 한국고용정보원·한국진로교육학회

한국고용정보원(원장 이재홍)은 한국진로교육학회와 공동으로 6월 7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진로교육, 미래를 만드는 희망사다리'라는 주제로 한국진로교육학회 제46차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해 한국진로교육학회,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매년 봄·가을 두 차례 학술대회를 열고 있으며,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그 동안의 진로교육이 개인의 잠재력 실현과 사회통합 측면에서 이루어 온 성과와 향후 과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고려대학교 김경근 교육학과 교수는 '희망사다리를 만드는 진로교육'이라는 기조강연을 통해 미래 개인과 사회 모두를 위한 진로교육의 역할과 의의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김기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년연구센터장과 박정근 전국 진로진학상담교사협의회의 회장은 각각 '사회통합 측면에서 진로교육의 개인·사회적 성과와 가치'와,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우리의 디딤돌, 걸림돌'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진로교육에 대한 시사점과 향후 과제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다양한 직업교육, 이제 정책 수혜자가 직접 알린다

2018년 6월 7일, 한국폴리텍대학

한국폴리텍대학(이사장 이석행, 이하 폴리텍)은 지난 7일 전국 35개 캠퍼스에서 재학생과 졸업생 등 1,351명에 대한 ‘직업교육 홍보 서포터즈’ 발대식을 가졌다.

‘직업교육 홍보 서포터즈’는 취업난 등으로 인해 기술을 배우려는 청년들이 최근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여, 폴리텍이 운영하는 다양한 직업교육 과정과 학과를 보다 이해하기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무엇보다 수요자인 일반 국민들 눈높이에서의 정보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서포터즈 발대식 중에는 폴리텍 창원캠퍼스 삼부자의 참여가 단연 화제였으며, 최고 기술단계인 기능장 과정에 재학 중인 아버지 남진호 씨는 산업설비자동화과에 재학 중인 둘째 아들 남중현 군과 함께 서포터즈에 동참했다.

아버지 남진호 씨는 “폴리텍에는 기술인이 밟아야 할 단계별 과정은 물론, 연령대별 참여가 가능한 다양한 교육 과정이 많다”며, “아들과 함께 기술인의 길을 같이 걷는 지금 너무 행복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스마트전기와 군 휴학 중인 첫째 아들도 복학하면 서포터즈 활동에 참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전공공기관, 이전지역인재 양성에 힘 보탠다

2018년 6월 19일,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원장 박병호)은 전라북도·한국전기안전공사·지역대학과 함께 대학생 직무능력 향상 및 이전지역인재 양성을 목표로 ‘혁신도시 오픈캠퍼스 지역교육과정’ 협약을 19일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식을 통해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은 지역대학생들의 진로 모색 기회를 제공하고 인재 양성 등을 도모하기 위한 지역교육과정*(오픈캠퍼스) 운영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 뜻을 모았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지역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전기설비 Basic 과정’을 계획하였으며, NCS(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으로 설계된 본 과정은 공사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직무 수행에 초점을 맞춘 현장실습 중심 프로그램으로, 하계방학 중 총 2회 운영한다.

박병호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은 “혁신도시 내 청년들의 취업 및 창업을 지원하고, 인재 개발원 내 우수 교육 프로그램을 지역에 공유하여 우수한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 지역교육과정(오픈캠퍼스)
이전공공기관이 지역대학과 상호 협력하여 지역대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직무 및 현장실습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을 통칭

'18년 상반기 기준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고용노동부, 2018



고용노동부는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중 약 32,000개 표본사업체를 대상으로 인력
충원, 미충원현황 및 채용계획 등을 조사한 '18년 상반기(4월 기준) 「직종별사업체노동력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 총괄

- '18년 1분기에 구인인원은 834천명이고, 채용인원은 744천명
- '18.1분기 미충원인원*은 전년동기대비 4천명(4.2%) 감소, 미충원율**은 0.2%p 하락
- '18.4.1. 기준 부족인원은 전년동기대비 10천명(3.4%) 증가, 인력부족률은 2.4%로
전년과 동일
- '18.2분기~3분기 채용계획인원은 전년동기대비 6천명(2.1%) 증가

* 미충원인원=구인인원-채용인원
**미충원율=(미충원인원/구인인원)*100

■ 구인인원(채용인원)

- '18.1분기 구인인원은 834천명으로 전년동기대비 17천명(1.9%) 감소, 채용인원은
744천명으로 전년동기대비 13천명(1.7%) 감소

〈 구인 및 채용인원 추이 〉

(단위: 천명)

구분	'15.1/4	'15.3/4	'16.1/4	'16.3/4	'17.1/4	'17.3/4	'18.1/4
구인인원	800 (22)	694 (-5)	820 (19)	703 (9)	850 (31)	721 (18)	834 (-17)
채용인원	726 (37)	611 (-5)	729 (4)	614 (3)	757 (27)	636 (23)	744 (-13)

*()는 전년동기대비 증감

- 구인 및 채용인원이 많은 직종은 경영·회계·사무 관련직(구인 108천명, 채용 97천명),
교육·연구 관련직(구인 88천명, 채용 87천명), 보건·의료 관련직(구인 72천명, 채용
65천명), 경비 및 청소 관련직(구인 65천명, 채용 63천명) 순임

■ 미충원인원(미충원율)

- '18.1분기 동안 사업체에서 적극적인 구인에도 불구하고 인력을 충원하지 못한 미충원
인원은 90천명으로 전년동기대비 4천명(4.2%) 감소하였고, 미충원율은 10.8%로
전년동기대비 0.2%p 하락

〈 미충원인원 및 미충원율 추이 〉

(단위: 천명, %, %p)

구분	'15.1/4	'15.3/4	'16.1/4	'16.3/4	'17.1/4	'17.3/4	'18.1/4
미충원인원	75 (-15)	83 (0)	91 (16)	90 (7)	94 (3)	85 (-5)	90 (-4)
미충원율	9.3 (-2.2)	12.0 (0.1)	11.0 (1.7)	12.7 (0.7)	11.0 (0.0)	11.6 (-1.1)	10.8 (-0.2)

*()는 전년동기대비 증감

미충원사유

구분	전체(천/명)
전체	4,200 [100.0]
소극적 구인활동	411 [9.8]
다른 사업체와의 인력유치경쟁	603 [14.4]
구직자 기피 직종	633 [15.1]
임금수준 등 근로조건이 맞지 않기 때문	977 [23.3]
요구 학력·자격을 갖춘 지원자가 없기 때문	666 [15.9]
요구 경력을 갖춘 지원자가 없기 때문	706 [16.8]
통근거리가 멀거나 불편하기 때문	180 [4.3]
기타	24 [0.6]

■ 부족인원(인력부족률)

- '18.4.1.기준 부족인원*은 296천명으로 전년동기대비 10천명(3.4%) 증가하였고, 인력부족률은 2.4%로 전년과 동일

*부족인원 : 채용여부나 채용계획과 무관하게 당해 사업체의 정상적인 경영과 생산시설의 가동, 고객의 주문에 대응하기 위하여 현재보다 더 필요한 인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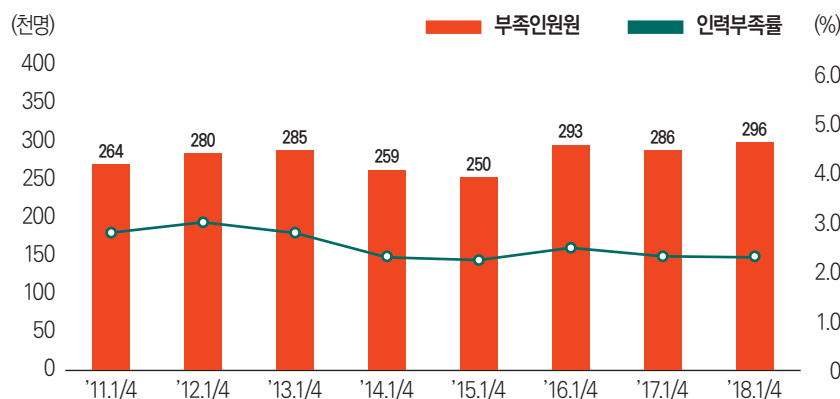
〈 부족인원 및 인력부족률 추이 〉

(단위: 천명, %, %p)

구분	'15.1/4	'15.3/4	'16.1/4	'16.3/4	'17.1/4	'17.3/4	'18.1/4
부족인원	250 (-9)	270 (3)	293 (43)	283 (14)	286 (-7)	280 (-4)	296 (10)
인력부족률	2.3 (-0.1)	2.4 (0.0)	2.6 (0.3)	2.5 (0.1)	2.4 (-0.2)	2.3 (-0.2)	2.4 (0.0)

* ()는 전년동기대비 증감, 인력부족률: [부족인원/(부족인원+현원)]×100

〈 연도별 부족인원 및 인력부족률 〉



- 부족인원 '16년부터 29만명 내외이고, 미충원률은 '14년부터 2.5% 내외 수준

■ 채용계획인원

- '18년 2/4분기부터 3/4분기 동안 채용계획인원은 314천명으로 전년동기대비 6천명 (2.1%) 증가하였음

〈 채용계획인원 및 증감 추이 〉

(단위: 천명)

구분	'15.2/4 ~'15.3/4	'15.4/4 ~'16.1/4	'16.2/4 ~'16.3/4	'16.4/4 ~'17.1/4	'17.2/4 ~'17.3/4	'17.4/4 ~'18.1/4	'18.2/4 ~'18.3/4
채용계획인원	287 (3)	295 (-2)	312 (25)	304 (9)	308 (-5)	303 (-1)	314 (6)

* ()는 전년동기대비

부족인원 해소노력 실태

30.1%

채용비용 증액 또는 구인방법의 다양화

25.1%

임금(급여)인상 등 근로조건 개선

- 채용계획인원이 많은 직종은 경영·회계·사무 관련직(42천명), 운전 및 운송 관련직 (40천명), 환경·인쇄·목재·가구·공예 및 생산단순직(26천명), 영업 및 판매 관련직 (25천명) 순임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전문대학 역량기반교육 운영 내실화 방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7

연구자 : 김기홍 외 2인



■ 목적

-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전문대학 역량기반교육에 대한 운영 실태를 정밀 진단하고 조사·분석함으로써 전문대학 직업교육훈련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 모색

■ 주요내용

- 전문대학 역량기반교육에 대한 운영 현황과 문제점 분석 및 시사점 도출
- 전문대학 역량기반교육에 대한 운영 사례 분석
- 전문대학 역량기반교육에 대한 운영 실태 조사 분석으로 대학 기관 및 학생에 대한 조사
- 전문대학 역량기반교육 운영 내실화 및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방안과 추진과제 제시

평생직업교육훈련의 개혁 방향과 과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7

연구자 : 유한구 외 1인



■ 목적

- 미래사회 변화의 방향에서 현재의 직업교육제도와 정책이 갖는 문제점 분석
- 직업교육훈련시스템 구축을 위한 과제 제언

■ 주요내용

- NCS 체제 개편으로 직업교육훈련체제 통합을 위한 5가지 과제 제언
- NCS의 직업군 중심의 재구조화를 통한 유연성 확보
- 학교교육 단계의 핵심역량과 NCS 직업기초능력의 통합
- NCS의 고등교육으로의 확대
- 직무경험 및 평생교육의 NCS 통합
- 인공지능 기반 직업매칭 시스템의 도입

해외취업지원 미래전략 및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한국산업인력공단, 2017

연구자 : 김기용 외 3명



■ 목적

- 해외취업 지원사업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한 해외취업지원사업의 미래전략 및 중장기 발전방안 마련

■ 주요내용

- 해외취업 관련 수요전망 및 노동시장 분석을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정책, 경제, 사회, 기술, 법제도(PESTLE) 영역별 분석 수행
- 세계 주요 기관의 국가경쟁력 분석 모델을 벤치마킹하여 해외취업 수요전망 분석 모델 개발
- '청년층 글로벌 인적자원 개발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를 미션으로 한 비전체계 수립 등

제조 분야 4차 산업혁명의 정성적 파급효과 분석

한국고용정보원, 2017

연구자 : 김은 외 3명



■ 목적

- 국내 제조 분야에서 4차 산업혁명이 일자리에 미치는 파급효과 분석

■ 주요내용

- 독일의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인더스트리 4.0이 일자리 수급에 미치는 정성적 파급효과 분석
- 제조 분야 4차 산업혁명 추진에서 나타나는 독일과 한국의 유사점 및 차이점 파악
- 제조 분야 4차 산업혁명이 우리나라 일자리 수급에 주는 시사점 도출

기관 동향

※ 향후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이달의 기능한국인」 '5, 6월' 선정자 시상식 개최(6.26)
- 민간주도 일학습병행 아우스빌등(Ausbildung) 모델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식(7.4)
- 2018년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 훈련기관 선정(2차)(7.5)



- 2018년 NCS 사후컨설팅 시범사업 참여기업 모집(모집기한 : ~7.13)
- 2018년 숙련기술홍보(중, 고, 학부모) 기자단 모집(모집기한 : ~7.18)
- 2018년 제3차 일학습병행 학습기업 정기모집(모집기한 : ~7.20)
- NCS기반 훈련기준 조정의견 수렴(의견 제출기한 : ~7.27)
- 국가기술자격 「상장형 자격증」 무료 발급
 - 검정형 자격 : www.q-net.or.kr
 - 과정평가형 자격 : www.c.q-net.or.kr



- 고용서비스 발전을 위한 노사공동 혁신토론회 개최(7.9)
 - 전임 원장, 고용노동부, 내부직원 등 참여
-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일자리' 토론회 개최(국회의원회관 세미나실)
 - 7.10, 송옥주 의원실 공동주최
- 광주광역시 미래직업체험박람회 개최(7.21~22)
- 신입 및 청년인턴 채용(채용공고: 6.26~7.5)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만족도 조사 실시(~7월)

2018
07



한국폴리텍대학

www.kopo.ac.kr

- 2019학년도 교과과정개발 전문위원 워크숍(7.4~7.6)
- 제2회 벤처창업아이템경진대회 예선 및 멘토링캠프(7.4~7.6)
- 다습고등학교 e-book 기증식 및 감사패 전달식(7.12)
- 2018년 재학생 국제 영어캠프(7.20~8.11)
- 「직업교육훈련 50년, 폴리텍대학 발전방향 수립 추진단」 착수 보고회 개최(7.23)



KOREATECH
한국기술교육대학교

www.koreatech.ac.kr

- 2018 인권경영 포럼(6.22)
- 북한 인적자원개발 포럼(6.25)
- 2018 코리아텍 재학생 해외기술봉사 발대식(6.27)
- 2018 하계 대학총장세미나(6.28~29)
- 한경 밀레니엄 포럼(7.5)

[직업능력심사평가원]

- 2018년도 제7차 훈련이수자 평가(7.2~7.9)
- 2018년도 (2회차) 4차 산업혁명 선도훈련기관 공모 선정 결과 발표(7.4)
- 2018년도 하반기 신규기관 인증평가 신청(7.16~7.27)
- 올바른 훈련문화 만들기 포스터 공모전 실시(6.25~8.3)

K R I V E T 한국직업능력개발원

www.krivet.re.kr

- 2018년 전국 진로체험지원센터 역량 강화 전문 연수(7.3~7.5)
- 2018년 제3회 특별한 동행을 위한 토크콘서트(세종)(7.13)
- 온라인 진로상담 전문가 연수(7.20~7.21)
- 제68차 인재개발 정책포럼(7.23)



2018 직업능력의 달과 함께하는 미래일자리 공모전

미래일자리 '숨은고수'를 찾아라!

주 제 4차 산업혁명 속 변화될 미래일자리

응모 기간 2018. 6. 28.(목) ~ 8. 22.(수)

응모 자격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응모 분야 UCC/웹툰/포스터 등 자유서식

제출 자료 작품 1점, 응모지원서 1부

제출 방법 이메일 hrd-festival@daum.net 제출

접수 문의 KakaoTalk **Plus친구** 직업능력의 달

※ 공모전 상세 정보 및 응모지원서 다운로드는
직업능력의 달 홈페이지(<http://hrd-festival.org>)에서 확인 가능

심사 방법 발표심사(70%)+현장 청중평가(30%)

시상 내역

구분	시상명	상금 및 부상	인원
대상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상	상금 200만원	1명
금상		상금 100만원	1명
은상		상금 50만원	2명
동상		상금 30만원	3명
특별상	한국교육방송공사(EBS)사장상	기념품	3명

※ 시상 내역은 공모전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발표 및 시상 2018. 9. 11(화), 코엑스 (예정)

